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홍세은**, 정지수***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2015」 자료 중 2,000 명의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트 폭력 가해실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에 작용하는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는 행동통제 및 정서·신체·성적 폭력 모두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나, 아동기 학대경험이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높여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폭력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의 관계를 충동성이 조절하는지에 대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유의하였으나 행동통제와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발생 기제가 폭력 유형별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 충동성 외 어떤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각각의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정책 및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19.12.31.4.69>

❖ 주제어 : 데이트 폭력, 사회학습이론, 개인차이 이론,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폭력허용도, 충동성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A80386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15-AA-13) 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 경찰대학 행정학과,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조교수. 교신저자(jisu@police.ac.kr)

I. 서론

언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며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계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박현민·이병도·서우승·이창배, 2019; 오윤희·임성문, 2018; 오주령·박지선, 2019; 이승우·남재성, 2018; 손연우·권호인, 2018; 구혜영, 2017; 홍영오, 2017).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가 가진 함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촉발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에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기의 학대피해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인의 데이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폭력 행동 자체의 학습에 주목하였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와 신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가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성인기 이후의 데이트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발달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태도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경로에 작용하는 개인 성격 특성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폭력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성격 특징 중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충동성에 주목하여(Barratt & Patton, 1983), 폭력에 관대한 태도가 연인 간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충동성이 가중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단순한 발생 요인만을 확인하였던 기존 연구를 확장해 연인 간 폭력 관련 연구에 존재하고 있는 공백(missing link)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폭력 관련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그 경로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충동성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경험이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충동성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폭력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으

로 수정하는 것에 타겟팅된 인지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세분화된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사회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개인의 학대피해경험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충동성의 경우는 의무교육 기간 중 혹은 상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접근과 치방이 가능한 영역이다. 데이트 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동성에 관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점과 함의를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 원인변수가 데이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및 촉발 기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폭력과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정서적, 신체적, 성적 피해를 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폭력 행동”을 의미한다(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김정란·김경신, 1999). 데이트 폭력은 폭력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폭력과는 다르게 상대방에 대한 행동통제나 정서적 폭력과 같은 간접적 폭력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구분된다(구혜영, 2017; 김동기, 2009). 또한, 친밀한 연인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이후 신고나 처벌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손문숙·조재연, 2016; 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손문숙·조재연(2016)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 중 32.7%는 데이트 폭

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관계를 단절할 만큼 심하지 않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데이트 폭력의 이러한 경향은, 데이트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 신고를 꺼리고, 피해 이후에도 단호한 대처로 연결되지 않는 행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폭력과 구별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억제 및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만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어떤 유형의 폭력까지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 또한 학자마다 상이하다. 데이트 폭력을 신체적인 폭력만으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Sugarman & Hotgaling, 1989; Lloyd, Koval, & Cate, 1989)이 있는 반면에 신체적 폭력에 성적 폭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Makepeace, 1981)도 존재하며, 언어적인 위협이나 위협적인 행동과 같은 정서적 폭력 또한 데이트 폭력의 범주 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Anderson & Danis, 2007)도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2010)에서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을 정의하기도 하였다(홍영오, 20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비록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폭력이나 행동통제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및 행동통제 모두를 포함한 범주로 데이트 폭력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하위 유형은 심각성 측면이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유형마다 폭력 행동이 유발되는 기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유형별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여 본 연구의 모형으로 어떤 유형의 데이트 폭력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사회학습이론과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설명하고자 시도해 왔다(McCloskey & Lichter,

2003; 박현민 등, 2019; 홍영오, 2017; 김재엽·송아영, 2007).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개인이 범죄 행동 양식을 학습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Sutherland, 1947; Bandura, 1978). 학습은 주로 가족이나 또래집단과 같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습되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 외에도 범행동기나 범위반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 이론을 폭력 행동에 적용하면, 폭력행위는 개인이 친밀한 집단으로부터 폭력적인 행동 양식과 함께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학습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일차적으로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이 성장기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성인 이후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김유정·서경현, 2009; 김예정·김득성, 1999), 성장기 아동들이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청소년과 성인의 폭력행동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해왔다(Dardis, Dixon, Edwards, & Turchick, 2014; 조춘범, 201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동기에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범죄에 관해 학습되는 내용에는 범위반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며, 따라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폭력 행동 자체를 학습시킬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Sutherland, 1947; Bandura, 1978). 실제로 아동기 및 성장기에 학대받은 경험과 폭력허용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아동들이 성장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등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DeMaris, 1987; 김예정·김득성, 1999; 김은경·엄애선, 2010; 윤진·양승연·박병근, 2012; 서경현, 2009). 즉 아동들은 부모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폭력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폭력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김동기, 2009). 사

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기에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 폭력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Bandura, 1973; McCloskey & Lichter, 2003; 박현민 외, 201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한편 폭력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두 변인 간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어,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구혜영, 2017; 박선미, 2009).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활용한 폭력허용도란 폭력행사에 대한 수용 정도를 의미한다(홍영오, 2017).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폭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tets & Priog-Good, 1987; 서경현 등, 2001; 서경현, 2004), 다른 연구들은 폭력행동을 갈등 해결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할수록 데이트 폭력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O'Keefe, 1997; 김예정·김득성, 1999; 유선영, 2000; 장휘숙·조현각, 2001; 서경현 등, 2001; 손혜진·전귀연, 2003; 신혜섭·양혜원, 200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허용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연인관계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것처럼(Bandura, 1973) 폭력에 대한 낮아진 진입장벽은 결국 행동의 모방과 공격성의 증가로 나타나며, 실제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김은경·임예선, 201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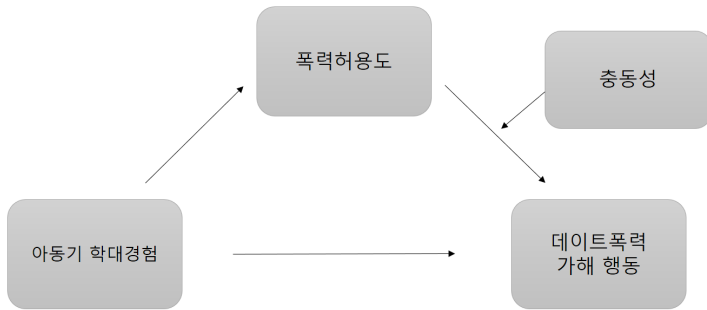
3. 데이트 폭력과 충동성

Dardis 등(2014)은 사회학습이론 외에도 개인차이 이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차이 이론은 폭력행위를 하는 개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성격 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들은 자아 존중감, 충동성,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 등을 폭력행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해왔다(Cicchetti & Howes, 1991; Dardis et al., 2014; 홍영오, 2017).

폭력적인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충동성은 반사회적 성향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Spitzer, Endicott, & Robins, 1978), 높은 충동성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와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hite et al., 1994; Wilson & Herrnstein, 1985).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한 적이 있는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충동성을 보이는 것을 나타냈으며(조은경, 1997), 폭력 행동의 경우에도 충동성이 높을수록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심응철, 1999).

또한 충동성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충동적일수록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Barratt & Patton, 1983), 충동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의 가능성이 증가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Lundeberg, Stith, Penn, & Ward, 2004; 김유정·서경현, 2009).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태도는 직접적 경험 혹은 타인의 설득과 같은 간접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사람, 물체, 이슈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념을 의미하는데(Bem, 1970; Eagly & Chaiken, 1993), 이러한 신념이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 특성에 의해 행동으로의 발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형성된 경우에도 개인의 충동성 수준에 따라 실제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이 조절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4. 폭력허용도가 데이트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충동성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측정

가. 연구자료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2015」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실태조사는 ‘데이트 폭력피해 실태’와 ‘데이트 폭력가해 실태’로 구분되었는데, 데이트 폭력피해 실태의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미혼 여성 2,000명이었고 폭력가해 실태의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미혼 남성 2,000명이었다. 연구대상은 조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패널 약 110만 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할당추출방법을 활용해 선정되었고, 민감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자료 중 성인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데이트 폭력 가해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은,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해를 하거나 그럴 의도가 인정되는 폭력행동을 의미한다(Straus et al., 1996; 김정란·김경신,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을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가해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편견(Werner & Nixon, 2005)으로 규정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임채영·정소영·이명신(2010), 박현민 외(2019) 등 다수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구분하여 연구에 사용되었다.

행동통제의 구체적 문항은 ‘옷차림을 제한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등 11문항이었고, 정서적 폭력은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등 7문항, 신체적 폭력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등 12개 문항, 그리고 성적 폭력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경험이 없음과 있음으로 더미코딩한 후 더하여 각각의 데이트 폭력 가해유형을 측정하였다. 문항 수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 시에는 4가지 각각의 가해유형별로 Z 표준화 값을 구해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겪은 언어적·신체적 학대피해경험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고향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거칠게 밀치거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등 9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경험이 없음과 있음으로 더미코딩한 후 더하여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을 측정

하였다. 문항 수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 시에는 Z 표준화 값을 구해 활용하였다.

3) 매개변수

이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폭력허용도는, 대인관계 내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폭력허용도는 ‘헤어지자고 위협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완전 동의함’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 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분석 시에는 Z 표준화 값을 활용하였다. 폭력허용도를 측정하는 8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936으로 나타나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설정한 충동성은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PAI-BOR; Morey, 1991) 문항 중,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다’, ‘나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 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분석 시에는 Z 표준화값을 활용하였다. 충동성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894로 나타나 내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한편 본 연구에서는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통제하여 연구의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 학력, 고용상태와 같은 상황 변인들과, 일탈 또는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개인특성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내에 포함된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상황 변인들 중 연령의 경우, 연령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성장기에 경험하는 학대피해 경험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학력과 고용상태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과 연관성을 밝혀 왔기 때문에(Dardis et al., 2015)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분노 표출 행동, 청소년 비행, 위법행동 등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확인되어왔기 때문에(이병도·박현민·서우승·이창배, 2019), 그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와 같은 10개 문항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Cronbach’s α 값은 0.858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방법

가.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이 연구는 분석 방법의 선정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표본과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가설 검증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폭력허용도, 충동성, 그리고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분산팽창계수(VIF)가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단순한 다중회귀분석으로는 조절된 매개 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전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나. 조절된 매개효과

이 연구는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를 폭력허용도가 매개하는지, 그리고 폭력허용도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동성이 조절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에 작용하는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어서 폭력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에 작용하는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에 작용하는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표 1).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연령은 19~29세가 1,263명(63.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응답자는 535명(26.8%), 40대는 162명(8.1%), 50대는 40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256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309명(15.5%), 2년제 대학 졸업이 280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응답자의 교제 당시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797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472명(23.6%), 아르바이트 등 직업을 가진 학생이 397명(19.9%), 휴직, 실업, 또는 정년퇴직, 가사전담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68명(8.5%)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166명(8.3%)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19~29세	1,263	63.1
	30~39세	535	26.8
	40~49세	162	8.1
	50~59세	40	2.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0	1.0
	고등학교 졸업	309	15.5
	2년제 대학 졸업	280	14.0
	4년제 대학 졸업	1,256	62.8
	대학원 석사 졸업	104	5.2
	대학원 박사 졸업	31	1.6
고용상태	정규직	797	39.9
	비정규직	166	8.3
	아르바이트 학생	397	19.9
	학생	472	23.6
	휴직 등 기타	168	8.5

주. N = 2,000명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먼저 독립 변수인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매개변수인 폭력허용도, 조절변수인 충동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이 중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종속변인들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0~10점 범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평균이 1.99점으로 나타났다.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은 1~4점의 범위 내에서 평균이 각각 1.31점과 2.03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종속변수인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을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나누어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이 변인들도 마찬가지로 독립변인 및 다른 종속변인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0~10점 범위로 환산하였다. 분석 결과, 행동통제의 평균은 3.03점, 정서적 폭력의 평균은 1.67점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의 평균은 0.74점, 성적 폭력의 평균은 1.29점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분

석에서는 각 변인들의 범위 차이 등을 고려하여 Z 표준화된 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고용상태,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연령은 19~59세로 측정하였고 평균은 28.81세였다. 학력은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6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나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평균은 1.90으로 대학 졸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상태는 고용 여부에 따라 0과 1의 더미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평균은 0.68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균값은 3.4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Cronbach's α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1.99	3.16	0	10	0.959
폭력허용도	1.31	0.53	1	4	0.936
충동성	2.03	0.56	1	4	0.894
행동통제	3.03	3.26	0	10	0.925
정서적 폭력	1.67	2.98	0	10	0.947
신체적 폭력	0.74	2.17	0	10	0.976
성적 폭력	1.29	2.32	0	10	0.919
자아존중감	3.49	0.59	1,3	5,0	0.858
연령	28.81	7.56	19	59	-
학력	1.90	0.47	1	3	-
고용상태	0.68	0.47	0	1	-

이어서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3). 우선 연령은 종속변수 중 정서적 폭력 및 성적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독립변수인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도 약하지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력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충동성과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충동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과 비고용으로 더미 코딩된 고용상태 변수는 행동통제, 정서·신체·성적 폭력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용된 경우와 폭력 행사, 폭력허용도 사이

의 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상관분석의 결과이므로 인과성과 구분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위계 등에서 비롯된 권력 차이가 데이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강제이론(coercion theory)의 측면에서 일부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Dutton & Goodman, 2005).

한편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폭력허용도, 충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들과도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학대피해경험이나 폭력 허용도 충동성 등 부정적인 개인특성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연령 및 고용상태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과 고용상태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독립변수인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4가지의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폭력허용도와 충동성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폭력허용도와 충동성 또한 모든 가해행동 변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두 변수 간 상관관계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계수가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체적 폭력은 성적 폭력과는 .699의 상관관계를, 정서적 폭력과는 .680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행동통제와 정서적 폭력은 .604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이동기 확대 피해	폭력 하용도	충동성	행동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자이존중감	연령	학력
폭력하용도	.43 ^{**}									
충동성	.32 ^{**}	.34 ^{**}								
행동통제	.42 ^{**}	.56 ^{**}	.33 ^{**}							
정서적 폭력	.53 ^{**}	.55 ^{**}	.32 ^{**}	.60 ^{**}						
신체적 폭력	.49 ^{**}	.53 ^{**}	.27 ^{**}	.50 ^{**}	.68 ^{**}					
성적 폭력	.40 ^{**}	.38 ^{**}	.24 ^{**}	.47 ^{**}	.56 ^{**}	.70 ^{**}				
자이존중감	-.26 ^{**}	-.22 ^{**}	-.50 ^{**}	-.19 ^{**}	-.19 ^{**}	-.18 ^{**}	-.16 ^{**}			
연령	.06 [*]	.00	.02	-.03	.10 [*]	.04	.13 ^{**}	-.18 ^{**}		
학력	-.02	-.01	-.08 ^{**}	-.01	-.03	-.02	-.01	.10 ^{**}	.09 ^{**}	
고용상태	.09 ^{**}	.09 ^{**}	.04	.08 [*]	.09 ^{**}	.08 ^{**}	.10 ^{**}	-.03	.27 ^{**}	.10 ^{**}

*p<.01, **p<.001

3.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에서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Hayes(2013)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PROCESS를 사용하여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 작용하는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설에 해당하는 개념적 모형(Model 4)에 대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고용상태와 개인 특성인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뒤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행동통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매개변수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폭력허용도 각각이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아지며($B = .40, t = 19.22, p < .001$),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B = .21, t = 10.55, p < .001$), 그리고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B = .46, t = 22.90, p < .001$) 행동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행동통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많을수록($B = .35, t = 18.12, p < .001$), 그리고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B = .40, t = 20.71, p < .001$) 정서적 폭력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행동도 아동기 학대피해경험($B = .32, t = 15.62, p < .001$)과 폭력허용도($B = .38, t = 19.04, p < .00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성적 폭력 또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B = .27, t = 12.09, p < .001$)과 폭력허용도($B = .26, t = 11.89, p < .001$)가 높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의 직접효과 또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가정 내 방임이나 성적학대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와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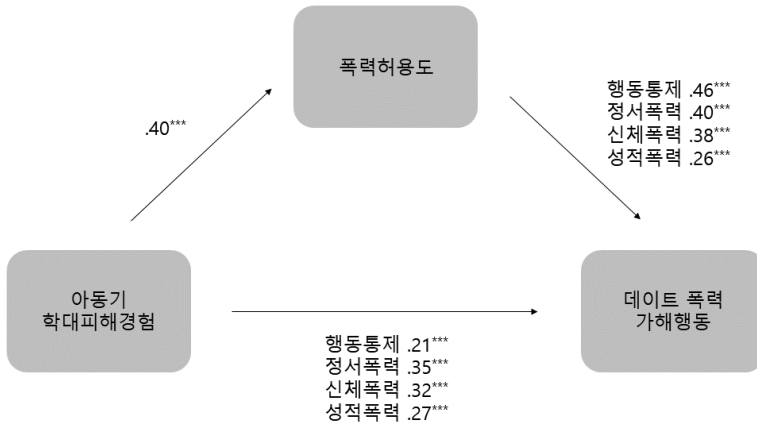
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다(신소라, 2017). 한편 통제변인 중 연령은 행동통제에는 부적 영향을, 정서적 폭력과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행동통제에 대해서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형 1	종속변인 = 폭력허용도(z)			
	회귀계수(B)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40***			
자아존중감	-.13***			
연령	-.01**			
학력	.03			
고용상태	.14**			
상수항	.09			
R ² (Adj. R ²)	.45(.21)			
F	103.02***			

모형 2	종속변인 = 데이트 폭력(z)			
	회귀계수(B)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21***	.35***	.32***	.27***
폭력허용도	.46***	.40***	.38***	.26***
자아존중감	-.04*	.00	-.02	-.01
연령	-.01**	.01***	.00	.01***
학력	.00	-.05	-.02	-.03
고용상태	.06	-.00	.04	.06
상수항	.17	-.20*	-.03	-.36**
R ² (Adj. R ²)	.60(.36)	.64(.41)	.60(.36)	.47(.23)
F	187.73***	234.23***	187.20***	96.49***

* p<.05, ** p<.01, *** p<.001



[그림 3]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나. 충동성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폭력허용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동성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해당하는 개념적 모형 (Model 1)에 대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고용상태와 개인 특성인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뒤 폭력허용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동성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폭력허용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는 행동통제를 제외한 모든 데이트 폭력 행동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폭력허용도가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지만($B = -.02, t = -1.29, p = .197$), 폭력허용도가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B = .08, t = 4.48, p < .001$),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도 충동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B = .13, t = 6.91, p < .001$). 또한 폭력허용도가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도 충동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B = .05, t = 2.44, p < .05$). 또한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인 중 연령은 행동통제에는 부적 영향을, 정서적 폭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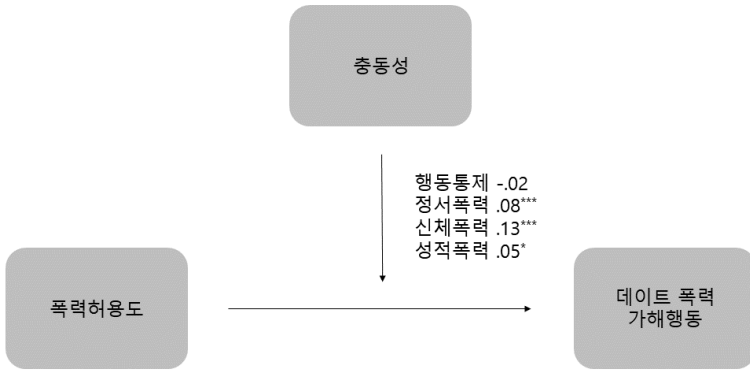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의 조절효과가 행동통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네 가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중 행동통제가 가장 충동성의 영향을 적게 받는 유형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Capezza와 Arriaga(2008)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심각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Sears(2006)는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난과 같은 요소의 경우에는 연인 사이에서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박현민 외, 2019 재인용). 실제로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핸드폰을 점검하거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면 여자친구가 싫어하더라도 하도록 만드는 등, 상대방의 자유의지나 태도, 행동 등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라는 특성과 함께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충동성의 영향력이 보다 적게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5〉 충동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	회귀계수(B)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폭력허용도(A)	.53***	.44***	.39***	.31***
충동성(B)	.15***	.15***	.10***	.12***
A × B	-.02	.08***	.13***	.05*
자아존중감	-.01	.01	-.03	-.00
연령	-.01*	.01***	.00	.02***
학력	.01	-.06	-.03	-.04
고용상태	.07	.03	.07	.08
상수항	.10	-.30**	-.13	-.44***
R ² (Adj. R ²)	.58(.34)	.58(.34)	.55(.31)	.42(.18)
F	147.43***	146.38***	124.88***	62.65***

*p<.05, **p<.01, ***p<.001



[그림 4] 충동성의 조절효과

다. 폭력허용도의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에 해당하는 개념적 모형 (Model 14)에 대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통제변인 중 연령은 행동통제에는 부적 영향을, 정서적·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만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후 연령, 학력, 고용상태와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절된 매개 모형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정서적 폭력($B = .03, SE = .01, 95\% CI [.006, .049]$)과 신체적 폭력($B = .04, SE = .02, 95\% CI [.013, .079]$)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나 행동통제와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앞서 확인한 것처럼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허용도가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B = .06, t = 3.84, p < .001$). 또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허용도가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충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B = .11,$

$t = 6.45, p < .001$). 그러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허용도가 행동통제와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인 충동성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계수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충동성이 낮은 경우에 폭력허용도를 매개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 = .26, SE = .04, 95\% CI [.194, .335]$)보다 충동성이 높은 경우의 간접효과($B = .40, SE = .02, 95\% CI [.361, .440]$)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도 충동성이 낮은 경우에 폭력허용도를 매개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 = .17, SE = .04, 95\% CI [.098, .245]$)보다 충동성이 높은 경우의 간접효과($B = .41, SE = .02, 95\% CI [.369, .451]$)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폭력허용도를 통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충동성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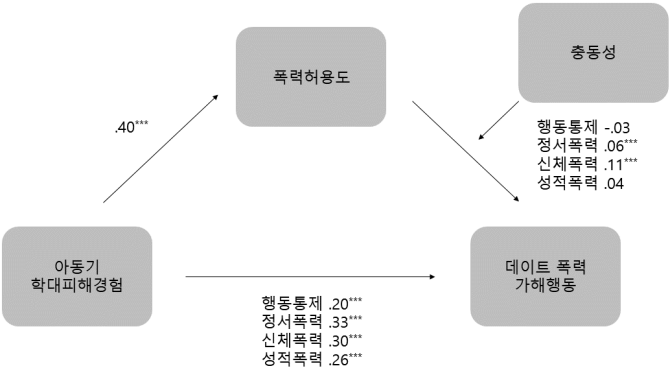
조절된 매개효과가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결과는 데이트 폭력의 각 유형들이 서로 다른 심리적 기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동통제는 일상적이라는 특성과 함께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폭력의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방향성이 양의 방향으로 일관적이고 p value 값(0.0604)을 보더라도 앞의 <표 5>의 조절효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인 <표 7>에서도 매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5> 및 <표 7>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 기반하여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서 해석을 제한하고자 한다.

〈표 6〉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형 1	종속변인 = 폭력허용도(z)			
	회귀계수(B)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40***			
자아존중감	-.13***			
연령	-.01**			
학력	.03			
고용상태	.14**			
상수항	.09			
R ² (Adj. R ²)	.45(.21)			
F	103.02***			

모형 2	종속변인 = 데이트 폭력(z)			
	회귀계수(B)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20***	.33***	.30***	.26***
폭력허용도(A)	.46***	.34***	.30***	.22***
충동성(B)	.12***	.10***	.05*	.08**
A × B	-.03	.06***	.11***	.04
자아존중감	.01	.04*	.00	.02
연령	-.01**	.01***	.00	.01***
학력	.01	-.05	-.03	-.03
고용상태	.06	-.00	.04	.05
상수항	.14	-.25**	-.08	-.40***
R ² (Adj. R ²)	.61(.37)	.65(.42)	.61(.38)	.48(.23)
F	147.28***	183.75***	149.32***	74.65***

* p<.05, ** p<.01, *** p<.001



[그림 5]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라. 결과의 강건성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한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결과를 제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은 잠재변수를 고려하여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Wirtz et al., 2016; Van der Voet et al., 2016). 또한, 이론적으로 측정오차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오차항과의 상관성에 대한 회귀분석의 전제인 $\text{corr}(Y, \epsilon)=0$ 을 만족할 수 있다(Hausman, 1978; Greene, 2012; Wooldridge, 2009).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Stata 13.0 프로그램의 sem 명령어를 활용하였다. 연령, 학력, 고용상태와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을 종속변수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폭력허용도, 충동성, 그리고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분석결과,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인 중 연령은 행동통제에는 부적 영향을, 정서적·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폭력에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령, 학력, 고용상태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허용도 및 충동성이 행동통제,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앞선 매개효과 분석과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폭력허용도가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B = .13, z = 3.85, p < .001$). 또한 폭력허용도가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충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B = .29, z = 6.47, p < .001$). 그러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허용도가 행동통제와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수행된 조절효과 분석과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7〉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 결과

모형 1	종속변인 = 폭력허용도(z)			
	회귀계수(B)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40***
자아존중감				-.13***
연령				-.01**
학력				.03
고용상태				.14**
상수항				.09

모형 2	종속변인 = 데이트 폭력			
	회귀계수(B)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72***	.70***	.79***	.66***
폭력허용도(A)	1.65***	.70***	.77***	.57***
충동성(B)	.42***	.21***	.13*	.20**
A × B	-.12	.13***	.29***	.09
자아존중감	.04	.09*	.00	.06
연령	-.02*	.02***	.01	.04***
학력	.04	-.11	-.07	-.08
고용상태	.20	-.01	.10	.14
상수항	3.82***	.64**	.67**	.39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기의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폭력허용도에 의해 매개되며, 폭력허용도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충동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또한 모든 데이트 폭력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만들어 데이트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행동통제를 제외한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해서 충동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행동통제와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폭력허용도가 높더라도 개인의 충동성이 낮으면 가해행동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으나 행동통제나 성적 폭력의 경우에는 충동성이 낮은 경우에도 억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동통제 및 성적 폭력 행동이 정서적 및 신체적 폭력 행동과는 다른 경로나 기제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행동통제나 성적 폭력이 정서적, 신체적 폭력과 달리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 전략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상술한 것처럼 성적 폭력의 경우 정서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과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관측치가 현재 보다 커질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폭력을 다른 유형으로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은 보다 선부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양적/질적 연구들을 통해서 개인적 및 환경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한 연령은 행동통제에는 부적 영향을, 정서적 폭력과 성적 폭력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동통제는 연령이 낮은 경우에, 정서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연령이 높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이 행동통제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에서 시작하여 이후 재범이 거듭되며 폭력의 강도가 심화되어 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의 전조일 수 있으며 폭력이 반복됨에 따라 더 심각한 폭력 유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Lloyd et al., 1989).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의 한계로 데이트 폭력 행동에 미치는 연령의 종단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향후에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령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형성되는 여러 유형 중 데이트 폭력의 사례는 사회문제→공중의제→정부의제의 외부주도형의 특성을 가진다(Cobb & Elder, 1972; Cobb, Ross, & Marc, 1976). 사회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공중의제로 형성되어 정부의제화 된 상태이다. 정부는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대안에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폭력허용도 등을 높이는 아동학대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통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책으로는 아동기 학대피해를 겪은 성인들의 데이트 폭력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던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아동기의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그 경로를 조절하는 변인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세분화된 예방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시기를 선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학대피해경험, 폭력허용도, 충동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학대피해경험의 측면에서 아동들이 학대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부모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들이 학대피해를 경험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신고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센터 등이 구축·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허용도의 측면에서,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폭력허용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중·고교 교과과정 내에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거나 교정하는 교육이 포함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만약 폭력허용도가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된 경우에는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수형자들을 우선적인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교정하는 인지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동성 측면에서도 초·중·고교 교과과정 내에 충동성을 통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모든 대상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탈 행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청소년 등品行 또는 충동성 문제를 보인 아동·청소년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충동성을 교정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예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나 행동통제 또한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트 폭력의 범주 내에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하위 유형들이 직접적 폭력 행사 여부나 심각성 측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하위 유형마다 폭력 행동이 유발되는 기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행동통제를 비롯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등 데이트 폭력 각각의 발현 기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이어져 각 폭력 유형의 특성과 발생 기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이 보이는 데이트 폭력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적용하여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이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혼 남성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Shorey, 2008)과 연인 간 폭력의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혼 남성의 표본만을 활용한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기혼 남성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표본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범죄학적 변수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자의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의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많은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통제변수로서의 기능과 모형의 설명력 증가 등의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인식에 기반한 단일 서베이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Common Method Bias와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된다면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함께,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혜영. (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 허용성 영향요인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 37-68.
-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6), 135-159.
- 김예정·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유정·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은경·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김재엽·송아영.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23, 99-125.
- 김정란·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박선미. (2009).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민·이병도·서우승·이창배. (2019). 아동기 직·간접적 폭력 경험이 미혼 성인 남성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77, 71-107.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 2, 75-98.
- 손문숙·조재연. (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

보고서, 1-39.

- 손연우·권호인.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549-566.
- 손혜진·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43-63.
- 신소라. (2017). 가정에서의 방임과 성적 학대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11-35.
- 신혜섭·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 299-323.
-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오윤희·임성문.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223-245.
- 오주령·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병도·박현민·서우승·이창배. (2019).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307-344.
- 이승우·남재성. (2018).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요인 검증-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4, 53-72.
- 임채영·정소영·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조은경. (1997).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30, 125-178.
- 조춘범. (2012). 청소년의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성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음란물 접촉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2, 145-172.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91.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1), 87-100.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Zuckerman (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m, D. (1970). *Beliefs, attitudes, and human affairs*. Belmont, CA: Wadsworth.
- Capezza, N. M., & Arriaga, X. B. (2008). You can degrade but you can't hit: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versus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2): 225 - 245.
- Cicchetti, D., & Howes, P. W. (199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child maltreatment.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3(3), 257-281.
- Cobb, R. W., & Elder, C. D. (1972). Individual orientations in the study of political symbolism. *Social Science Quarterly*, 79-90.
- Cobb, R., Ross, J. K., & Ross, M. H. (1976).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126-138.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 DeMaris, A. (1990). The dynamics of generational transfer in courtship violence:

- A biracial explo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19-231.
- Dutton, M. A., & Goodman, L. A. (2005). Coercion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Sex Roles*, 52(11-12), 743-756.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Belmont, CA: Wadsworth.
- Greene, W. H. (2012). *Econometric Analysis*, 7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dia.
- Hausman, J. A. (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251-127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Kasumovic, M. M., & Kuznekoff, J. H. (2015). Insights into sexism: Male status and performance moderates female-directed hostile and amicable behaviour. *PloS one*, 10(7), e0131613.
- Kaukinen, C. (2004). Status compatibility,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452-471.
- Lisak, D., & Roth, S. (1988). Motivational factors in nonincarcerated sexually aggressive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95 - 802.
- Lloyd, S. A., Koval, J. E., & Cate, R. M.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was presented at the 1988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raeger Publishers.
- Lundeberg, K., Stith, S. M., Penn, C. E., & Ward, D. B. (2004). A comparison of nonviolent, psychologically violent, and physically violent male college da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10), 1191-1200.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97-102.

- McCloskey, L. A., & Lichter, E. L.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t aggression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390-412.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oynihan, D., Herd, P., & Harvey, H. (2014). Administrative burden: Learning, psychological, and compliance costs in citizen-state interac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5(1), 43-69.
- Murphy, K. (2002). 'Trust me, I'm the taxman': The role of trust in nurturing compliance. Centre for Tax System Integrity Working Paper No. 43.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Sears, H. A., & Byers, E. S., & Whelan, J. J., & Saint-Pierre, M. (2006). If It Hurts You, Then It Is Not a Joke: Adolescents' Ideas About Girls' and Boys' Use and Experience of Abusive Behavior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9): 1191 - 1207.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3), 185-194.
- Spitzer, R. L., Endicott, J., & Robins, E. (1978).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rationale and reliabil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5(6), 773-782.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Violent Men In Intimate

-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2), 1034-1048.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Oxford, England: J. B. Lippincott.
- Van der Voet, J., Kuipers, B. S., & Groeneveld, S. (2016). Implementing change in public organiz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affective commitment to change in a public sector context. *Public Management Review*, 18(6), 842-865.
- Werner, N. E., & Nixon, C. L. (2005). Normative belief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bases of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3), 229-243.
- White, J. L., Moffitt, T. E., Caspi, A., Bartusch, D. J., Needles, D. J., & Stouthamer-Loeber, M. (1994).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2), 192-205.
- Williams, M. J., Gruenfeld, D. H., & Guillory, L. E. (2017). Sexual aggression when power is new: Effects of acute high power on chronically low-power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2), 201-223.
- Wilson, J. Q., & Herrnstein, R. J. (1998). *Crime human nature: The definitive study of the causes of crime*. Simon and Schuster.
- Wirtz, B. W., Piehler, R., Thomas, M. J., & Daiser, P. (2016). Resistance of public personnel to open government: A cognitive theory view of implementation barriers towards open government data. *Public Management Review*, 18(9), 1335-1364.
- Wooldridge, J. M. (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Western Pub.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The Effect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olerance of Violence and Impulsivity

Hong, Se-eun* · Jeong, Ji-su**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factors affec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IPV).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ate Violence Survey 2015”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analysi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tolerance toward violence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IPV was significant for every IPV behaviors(controlling, emotional,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confirming the path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IPV by increasing tolerant attitude toward violence. Also,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olerance toward violence and impulsivity was significant for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 but not for controlling and sexual violence. Differences 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chanism beneath the occurrence of IPV acts may vary by types of violence, so further studies should take place to explore what personal and environmental traits affect each IPV behavi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tatistically validates the relationship of factors affecting the conduct of date violence and, based on this, presents the need for prevention and education policies targeting the public and criminals.

❖ Key words: Intimate partner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Personality Theory, Childhood abuse, Tolerance of violence, Impulsivity

*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Police Studies,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